

# 비정규직,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 정부, 시설관리·청소원·경비원 등 전환 계획 발표... 60세이상 고령자·기간제 교사·의사 등 제외

정부가 공공부문의 시설관리원, 시설정소원, 경비원, 영양조리사 등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41만600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하지만 60세이상 고령자, 교·강사,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성이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노총,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실태조사를 토대로 이같은 전환계획을 내놨다.

특별실태조사 결과 지난 6월 기준 공공부문 총인원은 21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정규직은 81.8%인 175만

4000명, 비정규직은 19.2%인 41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41만6000명을 업무 형태별로 나눠보면 임시·간월 업무종사자는 10만명,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는 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임시·간월업무’는 계절적 업무 등 한시사업, 육아휴직·군입대 등 휴직 대체,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말한다.

41만6000명을 근무 형태로보면 기간제가 24만6000명, 파견·용역이 17만명으로 집계됐다.

◇상시·지속적 업무자중 20만5000명 전환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임시·간월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이번 전환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으로 국한했다.

이중에서 60세이상 고령자(5만4000명), 대학시간강사·기간제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교·강사(3만4000명), 공공기관 등의 실업탐입수(6000명), 변호사·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4000명)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은 제외됐다.

즉,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64.9%인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다 전환 시설청소원 3만4000명... 시설관리원 2만2000명 뒤이어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잠정 집계한 규모는 17만5000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전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숫자가 3만명이다.

전환제외자로 잠정 분류된 60세 이상자(5만4000명) 가운데 청소·경비 업종 종사자는 별도 정년 설정(장년 65세로 설정·전환 권고)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직종별 전환규모는 시설물청소원이 3만4000명으로 가장 많다. 기간제 시설청소원이 1700명, 파견·용역 시설청소원이 3만2200명이다.

이어 시설관리원(2만2000명), 사무보조원(1만9000명), 경비원(1만8000명),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영양조리사(6500명), 경매직(5500명), 고객종사자(5000명), 전화상담원(3500명), 계량검침원(2500명), 사서(1900명), 환경미화원(1600명), CCTV관제원(1200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시

## 롯데백 전주, 창립 38주년 기념행사

### 와인 슈퍼쇼 · 홈패션 인기상품전 · 할로윈 파티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창립 38주년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창립 38주년(2017년 11월 15일)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점은 창립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한정판 상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풍성한 할인 행사 및 사은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지하층 식품관에서는 ‘와인 슈퍼쇼’를 열고 프랑스, 이태리, 미국, 칠레 등의 다양한 와인을 30~80% 할인 판매한다.

또 각종 위스키 품평회에서 210개가 넘는 금상을 받은 와인 브랜드인 ‘카발란 클래식(20만원)’ 위스키도 한정 판매한다.

6층 이벤트 홀에서는 홈패션 인기 상품전, 슈즈미스 & BCBG 추동 아우터 특집, 아웃도어 다운점퍼 패스티벌 등 겨울 인기상품들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뉴스시

아울러 진도 포피, 꿀든듀 골드바, 캘러이어클라 시계, 오브렌 스니커즈 등 롯데백화점과 유명브랜드가 함께 기획한 인기 아이템 컬래버레이션 상품전과 아동·유아·영패션 상품군에서 진행되는 ‘할로윈 파티’ 행사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밖에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행사도 준비했다.

행사 기간에 스마트 쿠폰팩을 활용해 롯데카드, LPOINT 카드로 30만·60만·100만원 이상 구매하면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고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경창올림픽 D-100일 기념으로 제작한 ‘수호랑 방한용품’ 등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관계자는 “창립 38주년을 맞아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행사를 준비했다”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합리적인 쇼핑의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시

## AI예찰 ‘M-하티스’ 시스템 가동

### 하림, AI 조기 발견 · 신속 조치 효과 기대

하림이 국내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모바일 예찰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지난 24일 AI 조기 발견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예찰시스템(Mobile Harim Total Information System)”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닭사육 현장에서 가동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예찰프로그램은 AI 방역대책의 핵심인 조기 발견 및 신속 조치에 초점을 맞춰, 대상은 종계(병아리용 종란 생산)와 육계(닭고기용 닭) 농가다.

농장주 등 농장 관리자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손쉽게 폐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AI 발생 징후를 사전 포착하기 위해 농장주는 사육 중인 닭의 폐사율과 신란율을 매일 체크해 전용 모바일 앱인 ‘M-하티스’에 입력하고, 하림은 자체 구축한 전산망에 실시간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조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전염



병 발생 징후에 대한 신고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농가의 자체 판단과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면 조기 발견이 어렵다.

하림 측은 사전 협의를 통해 농가와 회사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이상 징후 발생 시 회사와 농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 사전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농장주 자체의 판단에 맡겨 방역 작기를 놓치는 사고를 사전에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림은 이달 1일부터 종계농장 50개와 육계, 삼계, 토종닭농가 543개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시행에 돌입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K-water 섬진강댐관리단-전북강살리기추진단

### 임실군 점기천 ‘도랑살리기’ 사업 협약 체결

K-water 섬진강댐관리단(단장 변종만)은 25일 섬진강물문문화관에서 (사)전북강살리기추진단(이사장 김택천)과 임실군 점기천 도랑살리기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수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물길 최상류 지역인 도랑은 여전히 생활하수와 농약,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어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환경 보전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저류조 조성 및 정화시설 시제를 통한 도랑 환경 개선, 주민의식 제고 및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 주민참여형 운동으로 구분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섬진강댐관리단 변종만 단장은 “댐 주변 소규모 도랑의 지속적인 수질 개선 노력으로 예전의 깨끗한 도랑으로 회복시키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지부 ‘군금고’ NH농협은행 선정

임실군은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를 군금고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일 박진두 임실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고지정심의회를 개최하고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를 군금고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간 4천여억원에 달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적

인 자금관리를 맡게 된다.

군금고 선정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규정된 금고자격에 갖춘 금융기관이 지역내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 1곳에 그쳐 수의계약으로 지정됐다.

군금고 지정 공고 후 금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 뒤 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금고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기사제보 288-9700

## 한우 유전능력 활용한 정밀 사육방법 ‘개발’

### 농진청, 비육기간 단축 생산비 절감

한우 사육에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사육 방법이 개발됐다.

농진청은 25일 5년간의 연구 끝에 한우 유전체 유전능력을 활용한 정밀 사육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한우 2600마리의 혈액을 채취해 1마리당 5만개의 유전체를 확보하고, 도축한 뒤의 성적과 비교·분석해 우수한 육질을 만들 수 있는 ‘육질형 유전체’ 4만2000개, 고기 양을 늘릴 수 있는 ‘성장형 유전체’ 4만개를 선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우 160마리를 ‘육질 유전능력’이 높은 집단과 ‘성장 유전능력’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한 뒤, 고·저 영양 사료를 먹여 시험 사육했다.

30개월령에 도축한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64.3%에서 81.8%로 17.5%가 향상됐고, 육량 A등급 출현율은 성장형 선발집단이 5.2%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육질형으로 사육할 경우 7.5% 소득

향상으로 1마리당 62만원, 성장형으로 분류한 경우에 3.7% 높은 1마리당 30만원의 소득이 각각 증가했다.

현재 한우 농가는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고급육 사양프로그램으로 30개월 이상 사육해 출산한다.

때문에 도축 전까지는 낮은 도체 성적을 가진 개체를 구별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육성 초기 6개월령 전·후에 유전능력을 예측할 수 있고, 맞춤형 사료를 먹임으로써 육질형은 더 좋은 고급육으로, 성장형은 비육기간 단축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특허출원키로 하고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유전정보 활용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지난해 거세한우 도축미릿수 35만 마리를 기준으로 할 때 22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시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